

“단속해도 그만”... 제주 도심 불법 현수막 난립

매년 수만건 철거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 미만
가로수 사이 뺨뺨이 설치... 높이 규정도 안 지켜
제주시, 9~20일 불법 현수막 특별지도·점검 실시

설 명절과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도심 곳곳에 불법 정당 및 일반 광고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는 전체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2023년 5만 2728건, 2024년 6만5918건, 2025년 6만3138건 등이다.

이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023

년 39건 (1121만5000원), 2024년 250건 (3189만원), 2025년 278건 (4687만2000원)에 불과하다. 각각 전체 철거 현수막 대비 0.4%, 0.4%, 0.1%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날 오전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이호동, 아라동 등을 확인한 결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설 명절 인사를 전하는 정당 현수막부터 아파트·주택 분양을 홍보하는 광고 현수막까지 다양했다.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에 현

수막을 설치할 시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해 최소 2.5m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이 낮게 설치될 경우 키가 작은 어린이 등은 도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발견된 불법 현수막 대부분이 높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횡단보도 인근에 마구잡이로 설치돼 있었다.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차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아라동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는 높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이 3개 이상 게시돼 있었다.

또 현수막 설치가 불가한 가로수

사이로 현수막들이 3~4개씩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불법 현수막을 막는 법이 존재하지만 통상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 난립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 단속과 정비에 철저하 하겠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관련 불법 현수막은 특히 엄중 처벌하는 등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설 연휴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게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안심 무인택배함 추가 설치도, 24일까지 운영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생활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안심 무인택배함’을 2곳 더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운영 기관·단체를 모집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안심 무인택배함은 공동주택, 주민센터 등 생활권 내에 설치돼 도민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2014년 4월 외도동주민센터에 처음 설치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18곳이 운영 중이다. 1인 가구 증가와 맞벌이 가정 확대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엔 2만2723회의 이용 횟수를 기록했다.

이번 운영 기관 모집 대상은 신규 설치 2곳과 기존 외도동주민센터 1곳 등 3곳이다. 선정된 기관·단체에는 1곳당 820만원 이내에서 전액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규 신청 시 무인택배함 설치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고. 진선희기자

독자 제보 750-2232



설대목 맞은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 민족 고유 명절인 설명절을 일주일 앞둔 9일 제주시 일도2동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에서 설 쓰일 제수용 과일들을 경매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설 연휴 14~18일 양지공원 특별 관리

제례실 폐쇄·추모 시간 단축... 근무인원 증원 배치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연휴 기간 양지공원 방문객 급증에 대비해 제례실을 폐쇄하고 추모 시간을 단축한다. 쾌적하고 원활한 추모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 관리 대책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시행한다. 이 기간 제례실 폐쇄를 감안해 개인별 추모 시간을 단축하고 추모객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 방문을 적극 유

도할 방침이다. 설 당일(17일)에는 화장로 가동도 일시 중단한다.

이와 함께 진입 구간 교통 통제와 주차 안내, 고인 위치 안내, 근무 인력 증원 배치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추모객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디지털 추모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장수의 별’ 노인성 관측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1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서귀포시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1100로에 위치한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에서 무병장수의 별 ‘노인성(Canopus)’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노인성은 남반구 하늘에 있는 응골자리(Carina)에서 가장 밝은 별로, 예로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이 별을 보면 무병장수와 행운을 얻는다는 전설이 전해져 ‘장수의 별’로 불리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쪽 지평선 가까이에서 짧은 시간만 관측이 가능해 관측 난이도가 높은 별로 꼽히며, 관측 조건이 뛰어난 제주, 특히

서귀포가 노인성 관측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다.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노인성을 관측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천문대로 이번 프로그램은 천체망원경으로 노인성을 직접 관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인성을 관측한 이들에게는 ‘관측 인증서’가 배부된다.

관측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서귀포시 E-티켓 홈페이지에서 노인성을 볼 수 있는 시간대를 확인 후 7일 전 오후 6시부터 이용 전날까지 예약 가능하며, 당일 예약 불가이다. 위영석기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시, 오는 27일까지 2차 대상 모집

서귀포시는 실외에서 사육되는 반려견의 체계적인 개체수 관리를 위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는 1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원대상은 읍·면·동 지역에서 실외견을 사육 중인 등록 대상 동물(개)의 소유자로, 가구당 1마리(5개월령 이상)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수술 전 검사와 후처

리비용을 포함해 암컷 40만원, 수컷 25만원이며 중·대형 잡종견에 우선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 총 69마리를 1차 대상자로 선정 완료했고 3월 내 중성화수술(1차)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1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2차 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위영석기자

도교육청, 2026 중학교 신입생 드림노트북 배부

11일부터 27일까지 순차 지급

제주지역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6 드림노트북 지원(대여)사업’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드림노트북을 11일 귀일중과 고산중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학교별 일정에 따라 순차 배부한다고 9일 밝혔다.

학교별 배부 일정이 다른 만큼 보호자는 휴대전화 안내 메시지 또는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배부일을 확인한 뒤 지정된 날짜에 학교를 방문해 노트북을 수령하면 된다. 수령 시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발급된 QR코드와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설 명절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사장 박 성 길

상근이사 : 한경중
이 사 : 김종현, 강상중, 고선심
김명찬, 강성극, 강영순
오원석, 양성우, 백창현
강혜령
감 사 : 원종환, 이경석
전 무 김현숙

올이유(ALL.E.U)가 있는 MG 산남새마을금고